

#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3, 마가복음 7:24-8:13, 시로페니키아 여인, 400 0명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24-8:13, 시로페니키아 여인, 4000에 대한 세션 13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연구하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의 중간에 있으며, 오늘을 진행하면서 7장에서 마무리하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주요 섹션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개회 강의에서 마가복음은 궁극적으로 네 섹션으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두 개의 주요 섹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주요 섹션은 예수님의 권위를 실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기적과 그의 행위를 강화하는 능력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권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어떻게 같등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 7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의 질책과 그들이 시작한 코르반 과정,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존재하도록 허용한 방식이 율법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사실, 심지어 격려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에 반하는 관행을 격려했고, 우리는 그것이 꿰뚫어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7장의 다음 부분에서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수와 시로페니키아 여인 사이의 상호작용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티레 근처로 가셨습니다 . 그는 한 집에 들어가셨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에 대해 듣자마자, 악령이 딸을 사로잡은 한 여자가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시리아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하라,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이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그녀는 대답했다. 심지어 탁자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 대답을 하면, 네가 가도 된다고.

악마가 당신 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것은 전형적인 치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익숙한 것과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지역에 들어오시고, 그는 비밀리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가 있는 곳에 소문이 퍼진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의 도움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측면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북서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지중해의 티레 로 가셨습니다 . 이곳은 상업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페니키아의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티레 왕과 무역을 했습니다 . 선지자들도 티레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티레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지역은 종종 유대인의 적들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예수께서는 말하자면 이방인적인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도 흥미로운데, 그에게 온 여자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족성과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의 분리,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장벽을 깨뜨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더 강조하기 위해, 마가는 그녀를 시로페니키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시리아에 속해 있지만, 페니키아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용어가 나온 거예요. 마태는 그녀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 주민들을 지칭하는 아주 오래된 고대 용어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께 왔고, 그녀의 절박함은 분명해요.

그녀는 예수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정말 먼저 거절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하라,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빵을 가져가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은 언뜻 보기에 매우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 있는 아이디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이들, 즉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에 대한 이 아이디어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흔한 모욕이 아니었으며, 이방인을 특징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개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별명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사진은 가족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모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전에 동유럽의 여러 지역, 지중해 주변,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그리스를 여행했습니다.

그 여러 경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흥미롭게 여겼던 것 중 하나는 마케도니아가 불가리아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가리아와 그리스의 차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동안 보았던 개들은 종종 무리 지어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에 있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매우 마르고, 매우 깡마르고, 매우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쥐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것과 많은 면에서 작동했습니다.

불가리아로 이사했을 때, 일부 동네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이 있었지만, 다른 동네에서는 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있던 그리스의 일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스 전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던 일부 지역에서는 개를 애완동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의 10년 전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부가 변함에 따라, 당신은 그것이 개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레기를 파헤치는 개 요소, 등등, 그것이 이 모욕의 배후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 고대 문화에서 유대인이 개를 애완동물로 키울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예수가 그녀에게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거부하는 건지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진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화에서, 누군가가 예수에게 다가가 도전하는 데 익숙한데, 보통 예수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를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올바르게 읽는다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근육질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에게 와서 기적을 요청하고, 예수께서 그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고 싶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면, 심지어 아이들, 빵, 개에 대한 이 진술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주님, 심지어 탁자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즉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에게 다가가고 그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생각으로 다가가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로 유대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가 제자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가정에 간 것처럼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힌트가 있었지만, 주로, 그는 주로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대답이 그녀에게서 빼내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절박함을 표현하고자 얼마나 강한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답할 때, 심지어 탁자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거기에는 겸손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진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녀는 "어떻게 감히 나를 개라고 부르니, 어떻게 감히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기 앉아서 "나는 중요해, 내 말을 들어, 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래, 개도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받아들인 셈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녀에게 그런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형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믿음 때문에, 등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답에 대해, 우리는 그런 대답이 믿음의 선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의 표현이며, 그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시면 가서도 됩니다. 악마가 당신 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격렬한 토론이든 장난기 어린 토론이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이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자기 아이를 보고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이방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매우 강하고 긍정적인 확인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별개의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악마가 딸을 떠나게 한 것이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이들에게 행하신 일에 합세한다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개들,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그는 둘 다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이들과 개들의 분리가, 우리가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는 것이 같은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 여성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진술이 유대인 남성에게서 나왔다면 매우 충격적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행위, 딸에게서 악마를 끌어내는 것, 그 측면은 거의 침묵합니다. 악마가 개입하거나 논의했던 다른 엑소시즘을 생각해 보면, 군단이 있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적, 기적의 직접성은 침묵하고, 그 괴로움은 침묵합니다.

여기서 실제 소유는 음소거됩니다. 엑소시즘은 음소거됩니다. 강조되는 것은 대화입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 그래서 마가가 암시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엑소시즘을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가의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다음 기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기적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를 볼 때, 저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시작으로 이것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티레 근처를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리 바다와 데카폴리스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그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리적 진행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귀머거리이고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군중에게서 멀리 데려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깊은 한숨을 쉬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파타 , 즉 열려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혀가 풀리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들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 해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치유에는 몇 가지 매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치유는 청력과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실제로 유사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29-31에 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은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지리적 장소, 이 도시 지역, 이 이방인 지역, 주로 이방인 지역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단, 귀신 들린 자의 엑소시즘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이 위대한 엑소시즘을 했고, 지금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이 남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니다. 그들은 돼지를 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제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다소 놀랍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은 몇 가지 면에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그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에 대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남자에게 누구에게나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성공한 듯합니다. 적어도 이 남자가 말한 것에 대해 이방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 긍정적인 진술에 연결한다면, 그는 이방인 지역의 심장부인 데카폴리스로 더욱 옮겨갔고, 그는 엄청난 긍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긍정적인 환영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 놀라운 엑소시즘 이후로 그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악령 들린 사람이 소식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우리가 갈릴리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흥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지리가 꽤 흥미롭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부터 2,000년 후인 이쪽에서 사는 것에 대한 보통 좋은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지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다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볼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31절에 예수님의 여행을 묘사한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티레 주변 을 떠나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데카폴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글썄요, 이것은 예수님이 북쪽으로 약 20마일을 이동하여 시돈으로 간 다음, 엔테스 강을 건너 남동쪽으로 이동한 다음 , 그곳에서 카이사레아 빌립보를 거쳐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카폴리스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말굽 모양의 여행으로 약 120마일입니다.

한 해설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를 거쳐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직선적이고 필수적인 경로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정확성에 반한다고 말하거나, 마가복음은 실제 지리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주거나, 여러 사건을 결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함이 정확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신 것과 매우 유사한 선교 활동을 이방인 땅에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여행을 하기 위해 이방인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의도적인 포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 사람에게 대한 설명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가 이 특정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기억하세요, 마가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배타적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떤 기적을 제시할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병어리였던 사람을 고친 일이 이사야 35:6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병어리가 기뻐 소리칠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혀가 풀리고 기쁨으로 외칠 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여기서 병어리가 말할 수 있다는 강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35장에서 말한 것이 지금 예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엑소시즘에 대해 얼마나 적게 언급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함께 멀리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못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악마가 당신 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고 어머니가 증언 한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 하지만 그것은 아주 먼 곳에서입니다.

여기서 이 기적은 매우 다르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손가락을 그 남자의 귀에 넣습니다.

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혀를 만집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마음을 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번역을 받기 전에 아람어를 얻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혀와 같은 기관을 직접 만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침을 뱉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눈이 멀어서 침을 뱉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침을 사용하는 방식, 그가 손가락을 남자의 귀에 넣는 방식, 그게 귀머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침을 뱉고 남자의 혀를 만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반응인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을 귀에 넣는 것은 귀머거리를 유발하는 악마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침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여기에 있었을 마법의 장치였는지, 그리고 예수는 마술사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고대 세계에서 때때로 연관되는 그런 유형의 행동을 따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활동은

이방인이 기대하는 것이므로 예수는 이방인에게 어울릴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듯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이 왜 침을 뱉고 혀를 만졌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깨진 것을 깨끗이 하거나, 작동하게 하는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은 그에게서 나온 무언가가 지금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면, 우리는 거기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에 약간의 성찬적 특성을 주거나, 심지어 예수의 피의 희생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안을 얻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가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원했다면 단순히 멀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을 군중 밖으로, 군중에서 멀리 데려왔고, 의도적으로 귀에 무언가를 하고 혀에 무언가를 합니다. 의미가 우리에게 잊혀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이유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이방인의 문화적 속어로 말이 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아람어는 아마도 이 기적의 기억에 남는 본질에 대한 강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것이 일종의 마법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기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끌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유대인성이 있는데, 그는 지금 아람어로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방인 땅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제가 언급한 이사야의 언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4:11의 힌트를 놓치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세가 대변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고,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간에게 입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그들을 귀머거리로 만들거나 병어리로 만들 것인가? 누가 그들에게 시력을 주거나 눈멀게 할 것인가? 나, 주님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병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 병어리가 된 것을 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께서 그 지역에서 거대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군단 엑소시즘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36절과 37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들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함께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이 기적에 대한 예수의 반응을 보고,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 구별이 취소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첫째,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놀랐습니다. 유대인 군중이 놀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 있는 것은 이 놀라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표시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무리는 유대인들의 무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이 명령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이 명령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 땅에서 이 명령을 내리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온 것이 아닙니다.

보통 침묵 명령은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중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지역에 들어오셨을 때, 심지어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함께 이사하셨을 때,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다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주요 섹션의 맨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 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의 연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9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10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것과 몇 가지 눈에 띄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은 이미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다. 내가 그들을 배고프게 돌려보내면, 그들은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왔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딴 지역이나 광야에서 누가 그들을 먹일 만큼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빵이 몇 개나 있나요?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일곱 개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일곱 개의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는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남은 깨진 조각 일곱 바구니를 주워 모았습니다. 약 4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후,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같은 사건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자주 주장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두 개의 별개의 기록이 된 특정 이야기이며, 마가는 그것을 자신의 복음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든 별개의 사건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기적적인 먹이기"입니다. 둘 다 외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둘 다 "빵이 몇 개나 있니?"라는 질문을 합니다. 비슷한 기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와 참여는 비슷합니다. 말씀과 섬김은 같은 순서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먹고 만족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남은 음식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에 군중이 해산되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사점을 많이 보고, 이걸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대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몇 마리.

그리고 그들은 같은 순서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사용된  
언어조차도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어에서 단어의 축소형입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물고기는 아마도 더 작은 물고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어리 종류의 물고기를 추측했습니다. 사람의 수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5,000명이었고, 이는 아마도 그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총 4,000명입니다. 첫 번째 계산에서 5,000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3일째입니다. 첫째 날은 봄이었습니다. 푸른 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시편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푸른 풀이나 계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매우 구체적인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이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남은 것의 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것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연민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리, 즉 모인 사람들에게 연민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일 동안 음식 없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두 번째에서 예수는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 먹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사역에서  
돌아왔고, 그곳에서 예수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알아차렸고, 사람들은 음식이 필요했고, 그들은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들은 그것을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필요를 분별하는 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훨씬 더 두드러진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온 것은 제자들이 아니다. 예수는 여기서 응답하는 대신 지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이 다른 기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전 전통이라는 이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 중 하나는, 단일 사건이 이제는 별개로 변형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어려움 중 하나는 구전 전통에서, 확고함을 의미하는 측면 중 하나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일반적으로 구전 전통에서 강력한 닳이였습니다. 5,000이 4,000이 되고, 5개의 빵이 7개의 빵이 되고, 2마리의 물고기가 몇 마리의 물고기가 되고, 1일이 3일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전 전통의 다른 측면이 때때로 변형되긴 했지만, 숫자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상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사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마가가 이러한 유사점에 대해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그의 논의의 이 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시로페니키아 여인과의 상호작용과 귀머거리와 병어리를 치유하는 일에서 그것을 강조해 왔으며, 이사야와 아마도 출애굽기와 연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평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 일은 또한 예수께서 이방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방식과 유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먹이를 먹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것 중 일부는 이 무리가 이방인과

같은 절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일을 보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배고픈 것 이상입니다. 이제 상당히 배고픔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음식이 무엇이든, 무엇이든 가져왔다면, 그들은 그것을 고갈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 거리를 왔어요. 그래서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화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육체적 상태와 그들이 지금처럼 배고픈 상태에서 집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글썄요, 이 근처에서 누가 그들을 먹일 만큼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글썄요, 이 논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방금 5,000명을 먹인 것을 보지 않았나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그렇게 놀라운 먹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글썄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 미루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독자들에게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모이지 않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이 구성된 방식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제자들에 대한 그 질문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려는 에피소드에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시다시피, 여기서도 숫자에 대해 조심해야 하고 숫자의 상징적 본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살펴볼 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논의했을 때,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탈출의 이미지가 있었고, 광야에서 기적으로 먹이를 주었고, 질서 있는 그룹을 배치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주의를 끌고 이스라엘을 조직했다고 생각합니다. 12개의 바구니가 있었는데, 저는 12가 그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측면이 없습니다. 숫자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상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을 볼 때 , 당신은 몇 개의 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 저는 우리가 그 7을 만들기 전에 매우 주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은 우리가 그 7을 다른 의미의 운반자로 만들기 전에 신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의미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사점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먹이는 일, 이러한 기적적인 먹이는 일에 메시아적 만찬, 메시아적 공급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4,000명을 먹이는 일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연민이 다르지만, 그들이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양처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같습니다. 즉, 메시아적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공급하는 큰 풍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개에게 베푸는 생각에 대한 것이더라도, 아이들과 개들이 즐기는 것은 같습니다.

같은 잔치입니다. 여기서 4,000명을 먹인 것은 이방인들이 부스러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전한 식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11에서 13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흥미롭고 매우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러다 갑자기 우리 는 뛰어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시점에서는 자리를 비웠지만, 지금은 갑자기 그를 시험하기 위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합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떠나 배에 다시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곳으로의 이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이방인 땅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수용이 있었던 곳을 떠났습니다.

불순종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을 때 불순종의 암시를 보았고,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수용, 시로페니키아 여인, 4,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서, 이방인들의 환영, 긍정적인 환영, 바리새인들 사이의 엄중한 구분을 주목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돌아왔고,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배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의 회복에 근거하여 바리새인들이 헤롯당원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확고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그를 심문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 여기서의 시험은 예수를 찾으려는 생각, 예수가 실패하고 예수가 비틀거리는 상황을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왔고 하늘에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표징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다시 말해, 아마도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으로부터 온 증거나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성서에서 신의 위대한 인물들, 그

중에서도 모세가 주요 사례인 경우, 그러한 표징이 수반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 증거의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표징이 예수와 함께한다는 생각은 끔찍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의 기적은 그의 권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적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위, 안식일의 의도를 이해하는 권위, 창조에 대한 권위, 폭풍을 진정시키는 것과 연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 생각에,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표징을 인증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 자체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에 속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선지자, 참 선지자의 증거는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예외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명을 요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시험이라는 아이디어, 증거를 인증하기 위해 표시를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신명기 6장,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유혹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유혹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유혹에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실 때 말입니다. 그 증거, 그 장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에게 하느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로 보여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암시가 예수의 반응에서 소리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는가? 글썄요, 이 세대는 광야의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맥락에서 일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모세가 이 비뚤어지고 타락한 세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이 세대의 언어를 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치료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언어를 시험하는 것을 보고, 마가는 이것의 아이러니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광야에서 먹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의 먹이 주기, 5,000명과 4,000명.

기적적인 먹이, 만나, 아시죠, 탈출 이야기. 제 말은, 구약성경 언어로 이미 제공된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하늘의 표적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진실로 말씀드리건대, 표적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표적이 없다는 그 선언은 주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은 신성한 진실성의 증거, 아시다시피, 기적이거나 사건을 인증하는 증거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고, 물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이것을 인증하는 표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진술이 어떤 표징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실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판단 언어입니다. 강박해지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8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마가복음 7:24-8:13, 시로페니키아 여인, 4000에 대한 세션 13입니다.